

‘국내 파사드 기술, 해외 의존 벗어난다’ (주)시티월ENG 원종호 대표

초고층 건축물은 물론 비정형 건축물 및 특수구조물 등 다양한 파사드 건축물은 설계뿐만 아니라 건축물 외벽에 대한 컨설팅 역시 중요하다. 최근 이 파사드 분야에서 차별화된 컨설팅으로 업계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업체가 있어 화제다. 바로 설립한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주)시티월ENG(이하 시티월)다. **취재** 황준익 기자 (windoor@windoor.co.kr)



지난 2007년 키튼월 구조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출범한 시티월은 파사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컨설팅 그룹이다. 구조엔지니어링, 단열엔지니어링, 디자인컨설팅, 필드컨설팅,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외벽 관련 모든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점차 복잡·중요해지는 건축물 외벽 설계에 대응해, 파사드의 중요성, 시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시티월의 원종호 대표(이하 원 대표)를 만나 그의 철학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엔지니어에서 사업가로

원 대표는 시티월을 설립하기 전, 구조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였다. 하지만 몸담고 있던 회사가 부도를 맞자 그는 재취업이 아닌 사업을 선택했다. 엔지니어로서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겠다는 다짐이 시티월을 탄생시킨 것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원 대표는 지난 2012년 법인전환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고, 현재 구조팀, 설계팀 등 5개 팀과 19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시작 5년 만에 시티월을 성장 반열에 올려놓았다.

“사업을 시작할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도 없었지요, 이전 회사에서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영업력이 다소 부족했지만 기존에 쌓아왔던 인맥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티월은 국·내외 구조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끊임없이 도전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왔다. 그 중심에는 원 대표가 자랑하는 시티월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주효했다. 바로 종합컨설팅이다. 지난 2013년 시작한 종합컨설팅은 구조, 설계, 에너지컨설팅 분야가 결합된 ‘원스톱’ 서비스로, 기존에는 설계를 기반으로 한 전방적인 컨설팅을 엔지니어 1명이 수행했지만, 시티월은 3가지 분야에 각각의 엔지니어를 투입, 유기적으로 시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화 전략에도 걸림돌은 있었다. 업계 전반에 걸쳐 컨설팅 무용론이 퍼지면서 컨설팅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던 것. 원 대표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최적의 파사드 완성에 기여하는 필드컨설팅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 특히, 필드컨설팅은 설계도서 검토, 사전 문제점 도출 및 해결안 제시와 커튼월의 설계, 생산, 제작 및 시공관리 등 단계적 관리로 업계의 호평을 이끌어 냈으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와의 거래도 확보했다.

“중합컨설팅은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조 비전문가가 모든 분야를 컨설팅 하는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시험을 초등학생이 채점하는 행태를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었지요. 또 컨설팅 무용론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못 받아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에너지평가, 시뮬레이션으로

원 대표의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NFRC(NATIONAL FENESTRATION RATING COUNCIL, 미국창호인증위원회)에서 개발된 창호에너지 평가 소프트웨어(WINDOW, THERM)를 이용, 명확한 열관류율 평가와 결로 분석을 4년 전부터 제공하고 있다. 모든 건축물 외벽의 최적화된 단열시스템 제안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호 단열성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창호 등급을 받기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발생하고 오랜 기간 기다려야하는 단점을 줄였지요. 아직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지만, 앞으로 공신력 있는 창호 단열성 평가방법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 대표, 교수님 소리 듣다

원 대표는 시티월 업무 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업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여러 직함이 적혀있는 그의 명함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그는 단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커튼월 실무교육과정’이라는 강의를 3년 전부터 해오고 있다. 또한 신한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도 할 만큼 원 대표는 커튼월 기술 전파에 힘쓰고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건축내풍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등 자기개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기술을 체계화하기 위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커튼월 설계 기술은 대부분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지요. 아직 국내에는 관련 교육기관이나 제대로 된 커리큘럼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강의 및 자기개발에 대한 집중은 원 대표의 강한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다. 시티월의 발전만이 목표가 아닌 업계 전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아직 국내 시장은 제삼 깎아먹기 경쟁이 만연해 있습니다. 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관련 업계가 합심해서 국내 기술 발전을 이룩하고 싶습니다. 시티월도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새로운 파사드 엔지니어링의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원 대표는 지난 2012년 법안전문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고, 현재 구조팀, 설계팀 등 5개 팀과 19명의 직원을 보유하며 사업시작 5년 만에 시티월을 성장 반열에 올려놓았다.